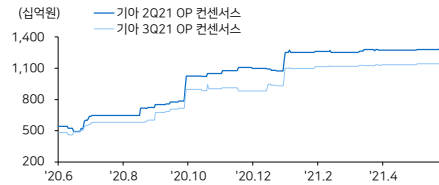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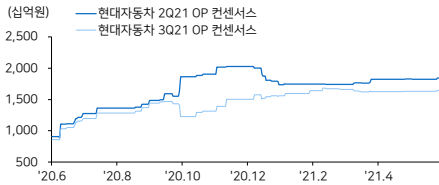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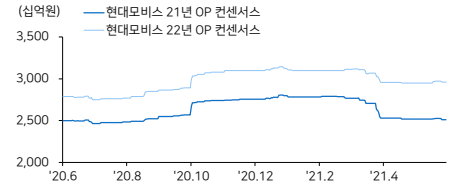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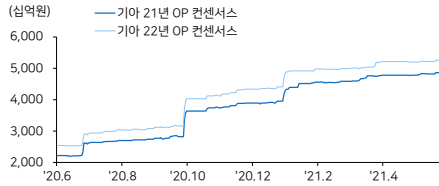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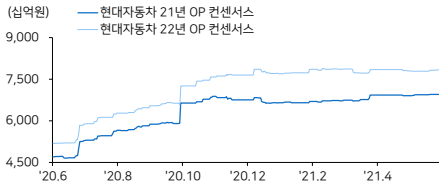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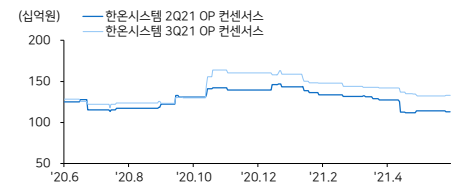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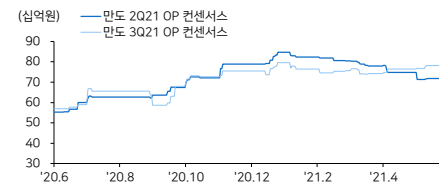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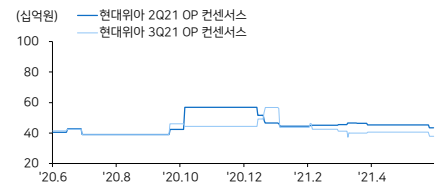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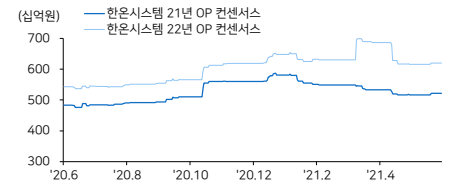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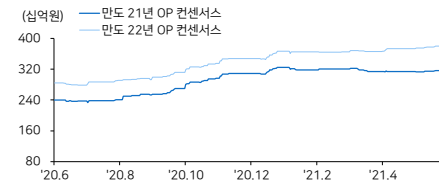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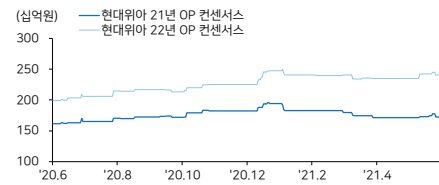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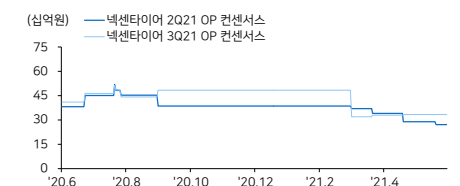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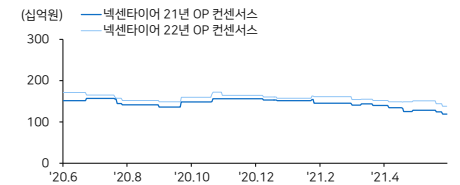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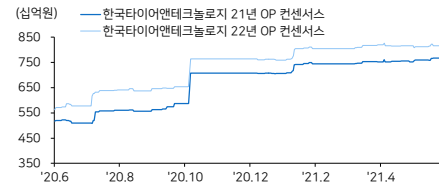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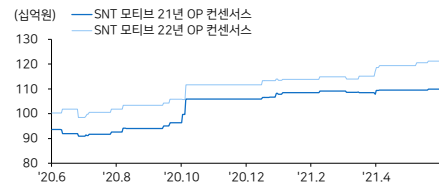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미국 시장에서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 (매일경제)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YoY +49.4% 증가한 40.7만대를 판매했으며, 기아 역시 +43.7% 증가한 37.8만 대를 판매하여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 손 윤 복이 담당 사장은 "전례 없는 모멘텀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
<https://bit.ly/2UeQ7Es>

현대차·기아, 6월 글로벌 판매량 나란히 '상승곡선' (BizFact)

현대차는 지난 6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난 35만4,409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으며, 기아는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한 25만3,592대를 판매했다. 양사 모두 반도체 수급 부족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매량 증가세가 두드러짐.
<https://bit.ly/3xdf9SU>

LG마그나 공식 출범...애플카 협력설 고개드는 이유 (머니투데이)

LG마그나 출범으로 LG그룹은 배터리, 인포테인먼트, 조광과 함께 파워트레인까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주요 사업축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음. LG마그나의 주요 생산품은 전기차 모터·인버터·차내 충전기 등.
<https://bit.ly/3x9zph>

Both NIO and XPeng announce record-high deliveries for June and Q2 (electrek)

NIO는 6월 YoY +116.1% 증가한 8,083대를 인도하며 현재까지 누적 인도량 117,597대에 도달. XPeng은 6,565 대를 인도하며 사상 최대 월별 인도량을 기록함. 양사 모두 월별/전년 대비 성장에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임.
<https://bit.ly/2Ukxy1>

현대차-그립 파트너십' 본격화...그립, 베트남·인니 전기차 도입 (THE GURU)

그립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현대차·기아 전기차 모델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그립은 이를 통해 전기차 주행거리 등에 대한 '그립 드라이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량 관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
<https://bit.ly/2TjmK3X>

현대차, 뉴질랜드에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H2H 계약 (THE GURU)

수소충전소 전문 업체 H2H에지는 현대차로부터 350bar급 이동식 컨테이너형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힘. 현대자동차가 뉴질랜드에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며 현지 수소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xbH4me>

세레스파워-보쉬, 파트너십 확대...연료전지 대량생산 박차 (THE GURU)

SOFEC 전문업체 세레스는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Bosch)그룹과 파트너십을 체결함. 이번 파트너십으로 세레스파워와 보쉬는 연료전지장치 시제품 제작 협력 계획. 보쉬는 '24년에 세레스 특허 기술 기반 연료 전지 장치 대량 제조 계획'.
<https://bit.ly/3dx8cUS>

U.S. quarterly auto sales jump on strong SUV demand, shift to Evs (reuters)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한 SUV 수요로 1분기 판매가 증가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운송수단과 EV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이라 고 밝힘. COVID 상황하에 저금리와 개인 운송수단 선호가 차량 수요를 증대함.
<https://reut.rs/2UdhaA2>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